

세종대왕과 한글의 우수성

10월 9일은 한글날

아~ 세종대왕님!

중국인이 컴퓨터 자판을 치는 모습, 3만개가 넘는다는 한자를 어떻게 좁은 자판에서 칠까?

한자를 자판에 나열하는 게 불가능하여 중국어 발음을 먼저 영어로 묘사해 알파벳으로 입력한 다음에, 단어마다 입력키를 눌러야 화면에서 한자로 바뀐다.

불편한 게 더 있다.

같은 병음을 가진 글자가 20개 정도는 보통이다.

그 중에서 맞는 한자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중국을 앞선 이유 하나가 여기에 있다. 타이핑을 많이 하는 전문

직 중국인들은 한자의 획과 부수를 나열한 또 다른 자판을 이용한다.

〈자판을 최대 다섯 번 눌러 글자 하나가 구성되므로 오펜 자형(五筆字型)이라고 한다. 속도가 빠르지만 익히기 어려워 일반인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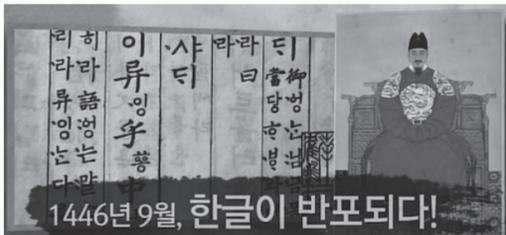
일본인은 어떻게?

컴퓨터 자판을 보니 역시 알파벳이다.

일본인들은 'ㅁ'을 영어로 'se'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을 쓴다. 각 단어가 영어 발음 표기에 맞게 입력해야 화면에서 '가나'로 바뀐다.

게다가 문장마다 한자가 있어 쉽게 한자변환을 해줘야 하므로 속도가 더디다.

나아가 '추'로 발음되는 한자만 해도 'ㅈ'을 비롯하여 20개 이상이나 골라줘야 한다. 일본어는 102개의 '가나'를



자판에 올려 '가나'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익숙해지기 어려워 이용도가 낮다.

이러니 인터넷 친화도가 한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말레이시아처럼 언어가 여러 가지인 국가들은 컴퓨터 입력방식 개발부터 골치덩어리다.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자판 내에서 모든 문자 입력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한글은 하늘의 축복이자 과학이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때, 한글로 5초면 되는 문장을

중국, 일본 문자는 35초 걸린다는 비교가 있다.

한글의 입력속도가 일곱 배 빠르다는 얘기가. 정보통신(IT) 시대에 큰 경쟁력이다. 한국인이 부지런하고 급한 성격과 승부근성에 한글이 '디지털 문자'로서 세계 정상 경쟁력이 있는 덕에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글로 된 인터넷 문자 정보의 양은 세계 몇번째는 된다.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

세종이 수백 년 뒤를 내다

본 정보통신대왕이 아니었다 하는 감탄이 나온다.

26개인 알파벳은 한글과 같은 소리문자이고 조합도 쉽지만, 'a'라도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다르고 나라별로 독음이 다른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갖는다. 어휘 조합 능력이 가장 다양하다.

소리 표현만도 8,800 여개 여서 중국어의 400 여개, 일본어의 300 여개와 비교가 안 된다.

세계적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 이어서 세계 문자 중 으뜸이라고 말한다. '알파벳의 꿈'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거의 0%인 세계 최저의 문맹률이 가능했고 이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

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까지 반영한 음성공학적 문자여서 세계의 언어를 다 표현해 낸다.

'맥도날드'를 중국은 '마이딩로우', 일본은 '마쿠노나르도'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이것이 네팔 등의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한글로 문자를 만들어 주는 운동이 추진되는 이유다.

외국인에게 5분만 설명하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소개할 수 있다.

한글은 기계적 친화력도 가장 좋아 정보통신시대의 준비된 문자다.

세계화의 잠재력이 적지 않다.

아~! 세종 IT 대왕님!!!

(...A면 5 페이지에 이어)

루터는 강인하고 화를 잘 내는 반면에, 카타리나는 훨씬 더 매사에 온유했다. 그녀는 천부적으로 말을 잘했고,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많았지만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모범적이었고,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 부부였고 행복했다. 교회사에서 가장 멋진 사랑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꼽을 피었다.

루터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호 노력해야 하는 일이며,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아내를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결혼생활에서 조화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으며, 불화보다 더 씁쓸한 것은 없다. 그리고 불화 다음으로 쓰라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잃는 일이다. 나도 그 아픔을 안다.”

루터는 아내를 존경했고 끔찍이 사랑했다. 그는 “나는 프랑스나 베니스를 다 준다 해도 카타리나와 바꾸지 않을 거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의 필요를 잘 보살피는 훌륭한 독일 주부였다.

비텐베르크의 새벽별, 카타

리나 -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당신을 살리겠어요”

당시 루터는 대학교수였지만 개인적인 봉급은 없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저술했지만 인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출판업자들이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거부했다. 시 교회 설교자로서도 급료를 받지 않았다.

그는 당시 사치스런 삶을 구가하던 주교들과 추기경들과 같지 않았다. 그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당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가난했으며, 재물을 탐하는 데서 거리가 멀었다. 결혼 후 신제후 요한의 배려로 약간의 봉급은 받았지만, 그의 결혼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하지만 루터 부부는 친절하고 항상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넓은 집에는 항상 전 유럽에서 몰려온 가난한 학생들, 친구들, 개혁자들,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카타리나는 대가족을 경제적으로 보살피고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정 사역에 정성을 다 쏟았다. 그녀는 가사를 돕기 위해 수도원 건물 지하에서 맥주를 양조하면서 생활했으며, 양봉을 하고 발을 열심히 가꿔 채소를 길렀다. 그녀는 작은 양어장도 만들고 가축 사육과 동물들을 키웠다. 특히 그녀는 돼지치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기도 했다. 그래서 루터는 아내를 친애하는 ‘돼지를 파는 여

주인’이라고 칭했다.

카타리나는 고된 노동을 즐기는 여성이었고 경제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했다. 또한 카타리나는 남편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편안하게 해 주었다. 잔병치레가 많았던 남편을 그녀는 지극 정성으로 시중을 들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루터가 죽을 정도로 심하게 앓았다. 카타리나는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당신을 살리겠어요”라며 밤잠을 가리지 않고 극진하게 간호했다. 그 덕에 루터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아내의 아름다운 내조 덕분에 루터는 다시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고, 서신을 쓸 수 있었다.

카타리나는 루터의 육적 건강뿐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그를 돕고 위로했다. 수많은 사상적 대적들을 늘 곁에 두어야 했던 종교개혁자 남편 루터에게 그녀의 따뜻하며 예리한 조언은 정금같이 귀한 것이었다. 카타리나의 상복이야기는 유명하다. 루터가 낙심하며 좌절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루터 앞에 카타리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루터는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물었다. 남편의 질문에 그녀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화를 내면서 “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루터에게 용기를 주었다. 루터는 다시 일어나 일하기 시작했다.

카타리나는 종교개혁 이후 첫 번째 개신교 목사 부인이다. 그녀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남편을 위해 부름 받은 신실한 여종이었다. 아내로서 카타리나는 놀라운 지혜와 따뜻함, 용기, 큰 사랑을 소유하였다. 그녀는 경건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아내였다. 의지력도 강했다. 그녀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지혜로운 조언자였다.

종교 개혁은 이 지혜로운 아내 숨은 동역자 카타리나와 함께 이루어진 신적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루터는 개신교의 아버지로서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불사조와 같은 개혁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종교개혁이라는 전쟁터에서 아내를 통해 받은 힘과 위로를 루터는 “지상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고 고백했다. 또한 루터는 아내 카타리나를 ‘나의 사랑하는 케테, 내 갈빛대, 비텐베르크의 새벽별’이라고 불렀다.

카타리나의 모범적인 가정생활의 모습은 여러 세기 동안 독일 가정의 모본이 되고 있다. 또

▲ 루터부부가 살았던 루터하우스 - 뉴스파워 김현배

한 카타리나를 통해서 제시되는 개신교 첫 번째 사모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 개신교 목사 사모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던져 주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가정과 부부가 많다. 루터 부부처럼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요 13:1)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캘거리 한우리교회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 나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 김재욱 | 교육, 선교 담당: 이강훈 목사, 이한준 전도사 | 차세대 목사: 이민예배, 양육 담당 목사: 오상학

주 일 예배	1부(교사)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예배(KM/EM)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분	
화요일예배	저녁 7시	
토요일예배	오전 7:00	

www.calgaryhanwoori.com

예배처소 : Mount Royal University(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태 양 정육·반찬·떡집

정 육	반찬	떡 류
LA갈비 찜갈비 소불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사골	대패삼겹살 길쌈삼겹살 양념갈비 돼지불고기 양념불고기 꼬리 샤브샤브	김치, 부추김치 무말랭이 고추무침 오징어젓 마른오징어무침 멸치볶음
		떡국떡 백설기 현미절편 가래떡 콩떡설기 현미설기 인절 무지개떡 절편 공찰떡 송편 떡볶이떡 현미공찰떡 팔시루떡 현미떡국떡 녹두시루떡 현미가래떡

"매달 두번째 화요일 휴업"

떡주문은 2~3일전에 해주십시오!

영업시간 : 월~토 11:00AM~7:00PM / 일요일, 할리데이 11:00AM~4:00PM

117, 15th Ave. SE Calgary AB
TEL. 403-233-2252 / 613-5977